

<반수생들을 위한 사문 정법 커리큘럼 추천>

Made by 마법사

철저하게 개인의 경험에 기반을 둔 분석입니다. 본인이 수험 생활 때 좋은 성적을 받았던 기억이 있는 본인만의 공부법이 있다면 그것을 따르는 것이 최선입니다.

또한, 저는 단 하나의 강의나 교재라도 제대로 접해본 강사가 ETOOS의 최적 강사와 MEGASTUDY의 김용택 강사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2020년 이후에 생겨난 모든 강의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기에 정보를 잘 모릅니다. 이 점 참고 바라고, 본인에게 맞는 강의는 맛보기를 통해 찾아 듣는 것을 추천합니다. 공부가 어느 정도 되어있는 반수생은 모의고사 해설 강의가 아니고서야 강의가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혼자 공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칼럼은 작년에 해당 과목으로 수능을 보았던 사람을 위주로 적은 것입니다. 처음 과목을 접하는 사람은 개념 강의부터 완벽히 본인 것으로 해두시길 바랍니다. 검은색 마더텅과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1) EBS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정치와 법의 경우에는 시간이 매우 부족하지 않은 한, 아니 **매우 부족하더라도 EBS 분석은 하여야 합니다.** 9월 평가원 시험에는 EBS를 변형한 문제가 반드시 출제될 수 있으니 9월 평가원 이전에 EBS 분석을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EBS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모르겠다, 혹은 질 높은 EBS 반영 모의고사를 풀고 싶어 하시는 분은 메가 김용택 강사분의 **단원별 모의고사**를 추천합니다. 기출과 EBS를 선지를 다루는 다지선다 모의고사입니다. 사실 정법 EBS 선지 분석으로는 이게 최고입니다. 반드시 낯선 선지는 따로 정리하셔야 합니다. 기출문제에서 나오지 않았던, EBS에서 등장하는 선지는 올해 수능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질 부분 중 하나입니다.

사회·문화의 경우에는 EBS에 좋은 문제들도 많지만, 우선순위에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은 아닙니다. EBS 문제는 대개 기출문제 변형 또는 수능에서 나오지 않았던, 앞으로 출제 확률이 낮을 것만 같은 문제들로 구성됩니다. 물론 낯선 선지를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제가 여름방학을 이용해 EBS 문제 및 괜찮은 선지들을 선별하여 자료 글의 형태로 업로드할 것입니다. 선별의 도움을 받고 싶으신 분은 종이책을 굳이 사지 않으셔도 됩니다. EBS 홈페이지에 (교재-수능 연계교재-교재 다운로드)에 들어가면 올해 EBS를 PDF로 볼 수 있습니다.)

(2) 기출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반수생의 경우, 수능이 150일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검은색 마더텅과 같은 양치기 기출 문제집을 풀기에는 시간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직접 과목과 시행년도를 선택해서 만들 수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빨간색 마더텅보다는 종이 질감이 좋고, 검은색 마더텅보다는 효율성이 좋습니다. 3개년 평가원을 해도 좋고, 5개년 평가원을 해도 좋습니다.

주소 : http://www.oneupbook.co.kr/gold2/custom/custom_ask.asp

(검색창에 골드교육을 쳐서 좌측상단 나만의 맞춤교재를 누르셔도 됩니다.)

사회·문화의 경우에는 6월 평가원과 9월 평가원 사이의 시기에 기출의 파급효과를 푸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그러라고 만든 기출 분석서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기출 강의를 듣는 것보다는 훨씬 나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파급효과를 이 시기에 보고, 그 이후에 모의고사 형태로 된 기출 문제를 푸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모의고사 형태로 풀고 싶으신 분은 ETOOS 최적 강사의 기선제압을 추천합니다. 기출 선지를 다루는 다지선다 모의고사입니다. 사회·문화, 정치와 법 모두 있습니다.

(3) 모의고사는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Main은 기출 문제와 EBS입니다. 모의고사는 6평을 반영한 신빙성 있는 모의고사로 9평 이전에 시간 체크를 위해 조금 푸는 것과 6평과 9평을 반영한 신빙성 있는 모의고사로 9평 이후에 푸는 것이 좋습니다. 9평 이후에는 실전 모의고사와 기출문제를 병행하면서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올해 수능의 방향성에 가깝게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9평 이후에는 많은 모의고사를 풀면서, 선지 정리를 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본인이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알 수 있습니다. 선지 정리를 하면서, 수능 직전까지 빠지는 부분이 없도록 공부해야 합니다. 그래야 빈틈없는 공부가 가능합니다.

모의고사는 올해 나오는 거 봐서 다시 추천하겠습니다.